

윤영철 '조기 철수'... "커브에 대한 방향성 잡았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투수 윤영철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조기 철수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치렀던 윤영철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캠프가 본격적인 실전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풀타임을 소화한 윤영철은 광주 회복조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 윤영철은 프로 첫 해였던 올 시즌 선발을 꺾자면서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다. 25경기에 나온 윤영철은 122.2이닝을 던지면서 8승을 기록하는 등 '특급 루키'의 면모를 보여줬다. KIA는 지난해 '관리차원'에서 제주도에선 진행된 마무리캠프 명단에서 윤영철의 이름을 제외했다. 아마추어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한 만큼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프로에 데뷔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번 오키나와 캠프 합류도 '관리차원'이었다.

내년 시즌 구상 '관리 차원'
웨이트·러닝 등 체력 보강 훈련
광주 회복조에서 시즌 마무리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11월의 오키나와에서 올 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위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다. 윤영철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점이 고려됐다. 대표팀 합류에 대비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캠프였다. 하지만 윤영철이 피치클락 등 새 제도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대표팀 추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캠프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됐지만 윤영철에게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윤영철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난해처럼 웨이트와 러닝도 하고 체력 보강 위주로 훈련을 할 것 같다. 캠프 중간에 귀국하게 됐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치른 첫 마무리캠프는 만족스러웠다. 윤영철은 "몸은 힘들어도 편안하게 좋은 날씨에서 훈련해서 좋았다. 러닝 많이 하고, 수비훈련도 꾸준히 했다"며 "캐치볼, 톱토스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 썼다"고 말했다. 윤영철은 프로 첫 시즌을 보낸 뒤 '체력'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마무리캠프 우선 목표도 '체력'이었다. 새로 팀에 합류한 정재훈 투수 코치, 이동걸 볼펜 코치와 미리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도 됐다. 윤영철은 "이동걸 코치님께서 드라이브 라인이나 드릴 같은 것 상·하체 꼬임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브의 디테일도 보강하는 기회가 됐다. 윤영철은 "정재훈 코치님께서 커브 날아가는 각을 내가 다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정도 높이만 설정해서 그 높이에서 브레이킹 걸리게끔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 커브는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려우니 바닥에 던지든, 존을 설정하고 거기에만 던지라고 하셨다"며 "커브는 구석구석 던질 수 없으니까 가운데, 낮은 것 등 스트라이크와 불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철은 16일 광주 훈련조에 합류한다. /wool@kwangju.co.kr



KIA 윤영철이 1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윤영철은 15일 귀국해 회복조에서 남은 캠프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14일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반환점 돈 캠프... 김종국 감독 "만족스러워"

고참·신인 선수 경쟁의 시간
부상 없이 훈련하고 변화 대처
선수들 더 잘하려는 의지 강해

'호랑이 군단'의 마무리캠프가 성공적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일부터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마무리캠프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 선수단이 귀국길에 오르는 만큼 캠프는 14일 반환점을 돈 셈이다. 오랜만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2024 시즌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캠프에는 최고참 이창진을 비롯해 김호령, 박준표, 이우성 등 고참급 선수들도 참여했다. 이상준(포수), 김두현(내야수), 강동훈-김민재-최지웅(이상 투수) 등 5명의 신인 선수도 있지만 올 시즌 1군에서 어필 무대를 가졌던 이들이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기 위한 구성이다. 김종국 감독은 "신인들을 점검하기 위해 캠프에 데려왔고, 1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캠프에 왔다. 내년에 이 선수들이 역할을 해줘야 팀

의 템스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코칭스태프가 '즐겁게'를 강조하면서 캠프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참 선수들이 술선수범 움직이면서 캠프는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이창진은 지난 시즌보다 부족했던 타격을 집중훈련하고 있고, 이우성은 올 시즌 가장 잘한 시즌인데 장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우성은 1루도 신경 쓰고 있다. 다른 포지션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연습하는 것 보면 곧잘 한다"며 "김호령은 올 시즌 출장이 적었다. 수비는 손 볼 곳 없지만 부족했던 타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운드에서는 박준표가 부상으로 출장 수도 적었으니까 가을 캠프부터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윤중현도 있는데 사이드암 선수들이 왼손 타자 상대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야구가 계속 바뀌고 있다. 한 투수가 세 타자를 의무적으로 상대하는 물도 거론되는데 이번 캠프는 사이드암 선수들이 오른 손, 왼 손 가리지 않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투심, 체인지업 등을 가다듬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 김재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참급 선수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캠프의 1차 목표는 부상 없이 훈련하는 것. 다음은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김 감독은 "새로운 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모두 내년에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잘했던 것 더 잘하고 싶고, 부족했던 부분은 메우고 싶고 그런 의지들이 많은 것 같다. 내년에 주전 자리를 뚫고 올라가려는 선수들이 많다. 보이지 않은 경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중간 평가를 했다.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빠듯하게 캠프가 돌아가고 있지만 선수들의 만족감이 높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훈련이 전개되고 있고, 코칭스태프가 많이 다가서야 한다"며 "훈련량은 많겠지만 스트레스 덜 받고 즐겁게 하자고 강조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코치들과 파트로 대화하면서 잘했던 부분은 더 잘하게 먼저 키우고 부족했던 부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LG,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LG 트윈스가 2023 KBO리그 통합우승(정규 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29년 만에 '한국프로야구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1994년 우승한 LG는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8시즌 연속 정상 정복에 실패한 '역대 2위 불명예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30년 우승 도전 실패'의 위기에서 LG는 마침내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팬들도 LG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된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기쁨을 만끽했다. 이 장면을 가장 부러운 눈길로 바라본 이들은 아마도 '롯데 자이언츠 팬'일 것이다. 롯데는 1984년과 1992년, 두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세 번째 우승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롯데는 올해도 7위에 머물렀다. 롯데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한 기간은 31년(1993~2023년)으로 늘었다. '31년 연속 우승 도전 실패'는 KBO리그 불명예 최다 기록이다. 이 부문 2위가 LG의 28년(1995~2022년)이다. LG는 29년 만에 우승하며 1990, 1994년에

이은 구단 역사상 3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한화 이글스는 1999년 구단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아직 'V2'를 이루지 못했다. 2000~2023년, 24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해 롯데(31년), LG(28년)에 이은 KBO리그 불명예 3위 기록을 작성했다. 아직 리빌딩을 완성하지 못한 테라 한화 구단의 마음은 더 급하다. 롯데, LG, 한화를 제외하면 '20년 이상 정상에 오르지 못한 구단'은 없다. 삼성 라이온즈가 1985년에 전후기 통합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차지하지 않고 우승한 뒤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 16년(1986~2001년)을 견딘 게 역대 불명예 공동 4위 기록이다. 여기에 2008년 창단한 키움 히어로즈가 올해까지 16년째 우승하지 못해, '우승 도전 실패 기간 공동 4위'가 됐다. 현재 KBO리그 멤버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없는 키움은 2024년에도 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7년 연속 우승 실패'의 설움을 겪는다. /연합뉴스

LPGA 최종전 CME 챔피언십 내일 개막

유해란 등 한국선수 8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마지막 대회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총상금 700만 달러)이 16일 막을 올린다.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클럽 골드코스(파72·6556야드)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23시즌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평균 타수 등 주요 개인 부문 1위가 정해진다. 이 대회에는 한 시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CME 글로벌 포인트 순위 상위 60명만 나올 수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올해 CME 글로벌 포인트 순위 60위 안에 들지 못해 '타이를 방어' 기회를 놓쳤다. 이 대회 결과로 올해의 선수, 상금왕, 평균 타수 등 주요 개인 부문 1위가 정해진다. 먼저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릴리아 부(미국)가 196점으로 1위, 셸린 부티에(프랑스)가 169점으로 2위다. 우승해야 30점을 받기 때문에 부티에가 역전하려면 최종전에서 우승하고, 부의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 부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셈이다. 상금 부문은 부가 325만2303 달러로 1위, 엘리스 코프츠(미국)가 304만7813 달러로 2위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상금왕 경쟁은 말 그대로 안갯속이다. 평균 타수 부문은 아타야 티피폰(태국)이 69.676타로 1위, 김효주가 69.689타로 2위다.



유해란

들의 격차는 불과 0.013타차이고, 고진영이 69.955타로 3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 타수는 최근 2년 연속 리디아 고가 1위에 올랐고, 2020년에는 대니얼 강(미국)이 베어 트로피 주인공이 됐다. 한국 선수의 최근 평균 타수 1위는 2019년 고진영이다. 김효주는 아직 베어 트로피를 받은 적이 없다. 올해 신인상은 이미 유해란으로 정해졌다. 유해란은 10월 LPGA 투어 웰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19년 이정은 이후 4년 만에 한국인 LPGA 투어 신인왕이 됐다. 지난해 올해의 선수, 상금왕, 평균 타수, 신인상 등 주요 개인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한국 선수들은 올해는 유해란이 신인상을 확정했고, 최종전 결과에 따라 평균 타수나 상금 1위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2022시즌에는 리디아 고가 올해의 선수, 상금왕, 베어 트로피를 휩쓸었고, 아타야 티피폰(태국)이 신인상을 받았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2019년 김세영, 2020년과 2021년 고진영 등 한국 선수들이 연달아 우승했으며 지난해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올랐다. 올해 대회에는 김효주, 고진영, 유해란, 양희영, 신지은, 김아림, 최해진, 김세영 등 한국 선수 8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